

# 책임총리·도덕성 검증 ... 분양특혜 의혹 불거져

## 정홍원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전관예우·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질타

여야 의원들은 20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가 20~22일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첫날인 이날에는 국정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문제 등 신상 관련 의혹을 검증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는 의지를 묻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방탄총리, 대독총리, 의전총리라는 오명을 들은 사람이 많은데 국민이 바라는 총리는 ‘책임총리’라며 ‘정 후보자가 생각하는 책임총리라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국무위원 제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책임총리의 성공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는 각료 제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며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17명의 장관 인선 과정에 대해 제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일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부조직 개편에 앞서 신설 부처 장관을 내정한 점 등을 거론, 정 후보자의 실질적 제정권 행사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장관 제정으로 사실상 첫 번째 총리 임무를 행했는데 장관 제정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것만 보아도 ‘하자 종합백화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없는 부처 장관 제정을 한 것이냐”며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현행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차분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5·16은 군사혁명가 쿠데타인가”라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이후 2년여 동안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5억4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의 투기 의혹, 가족 간 현금증여를 통한 편법 세금 면제 의혹, 정 후보자 아들의 현역 판정 4년 후 디스크에 따른 면제 등도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청문회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은 1994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엘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며 자신이 담당했던 비리 사건의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수서비리사건’은 한보그룹이 1991년 서울시, 청와대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택지의 특정 조항에 분양 특혜를 준 사건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고, 1992년 공개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은 것으로 1991년 진행된 한보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도 카이사르 같은 지도자 가져보고 싶어



18 카이사르

시모노 나나미는 15년에 걸친 대장정의 성취로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완간했다. 그 가운데 4권과 5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상하 편이다. 시모노 나나미는, 어쩌면 카이사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로마인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년 제국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로마인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 우리도 ‘카이사르 같은 지도자’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며칠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새 시대를 앞두고 카이사르를 떠올려 본다. 카이사르가 지금까지도 불세출의 지도자, 창조적인 천재로 기억되는 것은 새로운 로마의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고 그것을 잇달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정권에 오르자마자 ‘관용’을 신조로 내걸었던 카이사르는 “전쟁은 적에 대한 불신만 가지면 되지않, 정치는 다르다. 적조차도 신뢰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주위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반대세력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작품 ‘카이사르의 두상’을 보면 라면이 같은 그의 단단한 정신이 느껴진다. 카이사르는 미남은 아니었지만 웅장한 키와 기품 있는 행동거지로 군계일화이었다고 한다. 로마미술의 미력은 실물과 같은 훌륭한 초상을 남긴 데 있다. 아마 비슷한 형상이 영혼을 보존시켜준다는 믿음에서였을 것이다. 로마 황제의 흉상은 종교적인 외경감으로 우러러 볼 정도로 엄숙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미화할 욕이 있는 그대로 초상을 만들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실체 보았던 것처럼 알 수 있다. 카이사르의 모습에서 승부사적 기질과 민가를 해고하고 싶어 하는 야심 찬 의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광주시, ‘혈세먹는 하마’ 2순환도로 1구간, 매입 단초 생겼다

## 2순환도로 행정소송 판결 의미와 전망

### 4880억 재정절감 ... 통행료 인상 막는 효과도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광주시가 매입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 맥쿼리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전국 민간사업 공공시설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타 자치단체의 연쇄소송 등이 예상된다.

◇의미와 전망=광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맥쿼리가 최대 투자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자에 자기자본비율을 6.93%에서 29.91%로 올리고, 타인자본 중 선순위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10.0%에서 7.25%로 내려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자는 자기자본비율과 이자율을 임의로 조정하기 시작했던 2003년~2004년까지 소급해서 ‘원상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초과지급된 이자 전액을 환수하거나 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원상회복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원상회복이 안 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 가치(2756억원)의 80%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만큼 2205억원이 매입가격이 된다. 현행법상 원상회복명령 시정기간은 60일이고,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예정통과 이자율을 임의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중도해지 사유 치유기간(90일)과 청문절차(40일) 등을 거친 뒤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 심사협약 해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도해지 후 직접 운영하면 무상사용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민간사업자 측에 보존해 줘야 할 488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매년 지원중인 재정보전금(2011년 기준 238억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통행료 인상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책정돼 해당 구간의 통행료 인상을 막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타 자치단체도 촉각=맥쿼리가 참여한 타지역 민간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판 결과가 광주 제2순환도로만의 문제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4순환도로,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맥쿼리가 투자한 전국 10여개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등 타 지자체 측에 보존해 줘야 할 4880억원의 관심을 나타내며 광주시에 수차례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남대 광주시장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민간투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한 덕분에 승소까지 하게 됐으며, 타 자치단체에도 모범행정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와 사업자측이 항소할 것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빛의만평

- 김중두



한국은 주인 맘대로랍니다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 롯데제이티비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 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 롯데제이티비와 함께 무안출발 북경 vs 면산 vs 장가계 특가할인!

**북경 4/5일**  
★ 인기장성, 서커스, 천연온천, 자금성!  
무안 출발 329,000 원부터

**면산 4/5일**  
★ 북경+면산+태원!  
무안 출발 709,000 원부터

**장가계/천문산/원가계 4/5일**  
★ 무안-장가계 직항 전세기!  
무안 출발 859,000 원부터

### 광주출발 터키 고품격 터키 완전일주

터키 완전일주 8일

국내선 2회 포함

초특가 HIT 1,849,000 원부터

| 유럽   | 동남아  | 일본/괘사이판   | 중국  | 미주/남태평양  | SIT  |
|--|--|---|---|--|--|
| <p>2/23(토) 01:00 롯데호텔소방 방영예정</p> <p>하늘의왕비 동유럽 4국 9일<br/>A380 2,190,000 원부터</p> <p>동유럽 3/47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9일 249 원부터</p> | <p>총종일주 2중 버스합승+점보식 업그레이드 3일 499,000 원부터</p> <p>신선한 홍콩 마카오 심천 4일 699,000 원부터</p> <p>싱가포르 태국/호캉 방콕 파타야 5일 699,000 원부터</p> | <p>세계문화유산 히로시마/아마구치 2일 199,000 원부터</p> <p>부안해리 아마구치 전통온천 4일 199,000 원부터</p> <p>북큐슈온천 뱀부 아소 유후인 3일 499,000 원부터</p> | <p>공명 5월/6월 649,000 원부터</p> <p>계림 5월/6월 529,000 원부터</p> <p>정주운대산 4월/5월 379,000 원부터</p> <p>서안 3월/4월/5월 479,000 원부터</p> | <p>미서부 7/8/9월 109 원부터</p> <p>미동부 7/9/10/12월 169 원부터</p> <p>시드니 마담투소 1,390,000 원부터</p> <p>시드니 골드코스트 1,790,000 원부터</p> | <p>3월 특별기획 사운행사 이벤트특가 72종</p> <p>중국 청도 캐슬렉스 주말골프 3일 599,000 원부터</p> <p>동경 2박3일 영화보다 강동 베를린 269,000 원부터</p> |

신규대리점 OPEN! 062) 611-8875

광주점: 롯데제이티비 광주점, 롯데마트 천안,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원, 북구점, 기아점, 백운점, 구시창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